

# 비로소 활기 띠는 세계각국사 출판

## 번역서 태반이나 지역적으로 점차 다양해져

어떤 대상에 대한 일차적 관심이 그것의 외양과 현재에 있다면 보다 심화되고 총체적인 이해를 위한 노력의 우선순위는 그 현재를 배태한 역사에 놓인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사회주의권의 변화, 우리나라 외교의 다각화 등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의 가시권역에 포함되는 국가의 범위가 늘어나면서 이들 국가들의 역사를 기술한 각국사들의 출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세계사, 동양사, 서양사 등 강단의 교재용 개설서 또는 미국, 일본 등의 시각에 편중된 국히 한정된 국가의 역사들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종래 우리 역사서들의 실정. 이에 비해 최근 서점에 선보이고 있는 각국사들은 비록 번역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하나 대상국가와 역사기술자의 관점이 상대적으로 다양해짐으로써 역사를 보는 보다 다각적인 관점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밖에도 비록 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각국 역사의 특정분야에 대한 국내연구저작물의 출간도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출판사들이 특색있는 기획을 통해 이야기, 에세이, 만화 등의 다양한 형식을 동원한 역사서 출간도 최근의 한 경향으로 꼽을 수 있다.

현재 서점에 선보이고 있는 번역서로서의 각국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사.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식적인 교육용 역사책인 「중국사」(翦伯贊 편/이진복·김진옥 역, 학민사) 등 중국인의 입장에서 기술된 통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 「중국사개설」(松丸道雄 외 저/조성용 역, 한울아카데미), 「중국현대사」(佐伯有一 외 저/오상훈 역, 한길사) 등 일본인 학자에 의해 쓰여진 것과 프랑스 소르본대학 교수 장세노 등 9인의 학자에 의해 집필된 「중국현대사」(신영준 역, 까치) 등이 있다. 중국 역사서로는 이러한 통사 외에도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서도 다수 나와 있어 눈길을 끈다. 「왕안석과 개혁정책」(제임스 류 저/이범하 역, 지식산업사), 「청·일·한 외교관계사」(장탕푸 저/김기주·김원수 역, 민족문화사), 「중국古代書史」(錢存訓 저/김윤자 역, 동문선), 「중국현대사상사론」(이택후 저/손세제 역, 교보문고) 등이 그것이다.

경제, 경영, 문화 등을 분석한 일본관련서적들이 우리 서점의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는 넓이에 비하면 일본의 역사를 다룬 책들의 비중

은 작아 '가깝고도 먼 나라'로 표현되곤 하는 일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방향을 반영해준다.

일본 역사를 총체적으로 다룬 통사로는 「일본사」(존 W. 홀 저/박영재 역, 역민사)와 「일본사」(井上清 저/김갑수 역, 홍성사) 등이 나와 있고, 일본 봉건제를 유럽의 그것과 비교 분석하고 일본봉건체제의 특성과 근대화과정의 상관관계를 조명하고 있는 「일본의 봉건제」(피터 듀스 저/양필승·나행주 역, 신서원)과 「일본사상사」(守本順一郎 저/김석근·이근우 역, 이론과 실천), 「일본농업경제사」(暉峻衆三 편/전운성 역, 장원대출판부) 등이 나와 있다.

우리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미국 역사서 출간의 사정 또한 일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사신론」(V. 우드와스 편/박무성 역, 법문사), 「미국사의 구조」(A. 브리클리 외 저/박무성 역, 문맥사)와 앙드레 모로와의 「미국사」(신용석 역, 기린원) 등의 통사가 80년대 초반부터 띄엄띄엄 출판되었다. 최근,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들추어내지 않았던 미국의 경험 속의 '숨은 역사'를 탐색한 책 「미국사의 숨은 이야기」(다니엘 J. 부어스틴 저/이보형 외 역, 법문사)는 미국사의 일반저서에서는 읽을 수 없는 수많은 에피소드를 즐기면서 미국사의 특성 뿐만 아니라 역사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 책이다.

국교정상화 이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소련의 역사서도 과거 혁명사에 국한되어 있던 데서 탈피, 통사 및 문화사 등도 출간되고 있다. 통사로는 「소련사」(제프리 호크 저/김영석 역, 홍성사), 「러시아사」(R. D. 차크스 저/박해성 편역, 역민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소련연방과학아카데미역사연구소 레닌그라드지부가 펴낸 「러시아 문화사」(이경식·한중호 역, 논장)는 고대에서부터 러시아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러시아민족의 정신문화의 발전단계를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동·서독의 통일 이후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독일 및 기타 유럽의 역사서들은 아직 각국사보다는 유럽지역사 또는 혁명사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독일사의 경우는 「독일문화사」(W. 리스만 저/양도원 역, 한마당), 「독일현대사」(안드레아스 힐그루버 저/손상하역, 까치)와 앵겔스의 「독일 혁명사」 등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마르크스의 「프랑스 혁명사」(소나무)와,



서점에 나와 있는 세계각국사 연구서들. 번역물이 대부분인 가운데 국내저술도 점차 늘고 있다.

「프랑스사」(앙드레 모로아 저/신용석 역, 기린원)와 「프랑스인의 역사」(장 카르팡티에 외 저/주명철 역, 소나무) 등의 통사가 나와 있다. 기타 유럽지역사로는 「오늘의 동유럽」(자크 루프릭 저/윤덕희 역, 문학과지성사), 「동유럽인민민주주의 혁명사」(시바타 마사오 시 저/사상과정치경제연구소 역, 소나무) 등이 있다.

18C 문필가인 에드워드 기번의 명저 「로마 제국쇠망사」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역사」(매닝 클라크 저/최양희·문우상 역, 을유문화사), 「몽고문화사」(D. 마이달 외 저/김구산 역, 동문선) 등이 기타 국가의 역사서들로 눈길을 끈다.

이상과 같은 번역서들의 성과에 비하면 국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각국사관련 출판은 아직 부진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회지나 연구논문의 형태가 아닌 단행본으로 그간의 연구성과를 집약,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는 책들도 차츰 늘어나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각국사와 관련되어 특히 눈에 띄는 책들은 「중국현대사연구」(윤혜영 저, 일조각), 「중국고대사의 전개」(이춘식 저, 신서원), 「독일사의 제국면」(이민호 저, 느티나무), 「독일근대 사회경제사」(정해본, 지식산업사), 「한·이슬람 교류사」(이희수 저, 문덕사), 「프랑스 근대사 연구」(서정복 저, 삼영사) 등의 개인 저작물이 있다. 이밖에 연세대동서문제연구원에서 펴낸 '공산권 연구논총' (법문사)은, 국내 역사학계에서 거의 볼모의 영역이었던 불가리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등 공산권 국가들의 역사와 현재를 총괄적으로 이해할수 있게

하는 유일한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이 엮은 「강화 중국사 I-VII」(지식산업사)는 중국사 전반에 걸친 주요문제를 선정, 개괄적으로 정리한 우리 史則에서 빠져진 중국통사라는 점에서 값진 기획으로 손꼽히고 있다.

출판사들의 시리즈 기획 또한 각국사 출간의 추동력이 되고 있는데, 1982년 총 17권으로 기획 '관련국가 전공교수들로 하여금 일반인을 위한 각국사를 기술하게 한다'는 의도를 지닌 대한교과서의 '세계각국사시리즈'는 그 대표적인 경우. 이밖에 청아출판사의 '이야기역사 시리즈'도 비록 편저의 형태이기는 하나 국내 학자들의 손을 거쳐 각국사를 출간하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각국사 출간과 관련하여 이민호 교수(서울대 서양사학)는 "우리 시각의 정립을 위한 전단계로서의 외국번역서 출간에 대한 관심도 놓치지 말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의 변화를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는 우리입장에서 쓰여진 각국사의 출간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중기씨(연세대 강사)는 "냉전체제 붕괴 이후 우리 지식계의 관심과 연구가능성이 확장되었고, 종래 미국, 일본 중심의 사관에서 탈피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언어권의 학자들이 양산된 점에서 볼 때 각국사 출간의 활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실적 정보만을 좇는 일반독자들의 역사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호기심으로부터 진정한 관심으로 돌릴수 있는 출판사들의 기획 또한 학계의 노력과 함께 아우러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남정 기자